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457

JCCT 2024-7-53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 연구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Peace

이철희*, 이경행**, 박상혁***

Choul-Hee Lee*, Kyoung-Haing Lee**, Sang Hyuk Park***

요약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잡한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통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 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적극적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자안보협력체제, 인간안보, 평화 선도국가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has undergone rapid changes, presenting South Korea with complex security dilemmas.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Peace.' Based on Johan Galtung's concept of 'Positive Peac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uild sustainable peace by redesign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in Northeast Asia, expanding global peace contributions, promoting domestic social integration, and spreading a culture of peace. To realize these goal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to redefine the role of the military, reallocate defense budgets, introduce the concept of a peace dividend, promote the peaceful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legisla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peace. The implementation of a 'Positive Peace' strategy aims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leading nation in peace,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global community.

Key words : Positive Peac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Human Security, Peace Leading Nation

*정회원, 중원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7일

Received: May 15, 2024 / Revised: June 5, 2024
Accepted: June 17, 2024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Dronebot Military, Jungwon Univ, Korea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더해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1]. 이러한 복합적 안보 위협 속에서 한국은 특히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더욱 복잡한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군사력 증강과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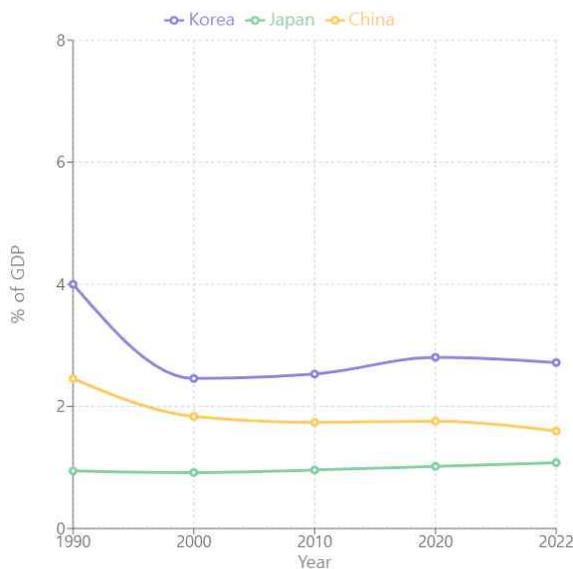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국방비 비중 (1990-2022)
Figure 1. Proportion of Defense Expenditure to GDP (1990-2022)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이는 역내 다른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3]. 이러한 군비 경쟁의 악순환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군사 중심의 안보 접근법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경제적 불평등, 전염병 등은 군사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다[4].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은 국경을 초월하며,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시한 이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사회 정의 실현, 갈등의 평화적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적극적 평화' 접근법은 안보를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군사적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교, 경제 협력, 문화 교류, 환경 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이다[6]. 특히 한국과 같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놓인 국가에게 이러한 접근법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20세기 후반 들어 큰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으로 안보 연구는 국가 간 군사적 충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7].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적극적 평화' 개념은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통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갈통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

이나 물리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인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다[5]. 이러한 구분은 평화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표 1. 평화 개념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eace Concepts

구분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정의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의 부재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제거와 사회 정의 실현
특징	- 단기적 접근 - 증상 해결에 초점	- 장기적, 지속가능한 접근 - 근본 원인 해결에 초점
수단	군사력, 억제, 평화유지 활동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인권 신장, 지속가능한 발전

출처: [5]

한편,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UN개발계획(UNDP)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이는 안보의 대상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확장하고, 안보의 영역을 군사적 측면에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가지 영역으로 확대했다[8]. 인간안보 개념은 전통적 안보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지속가능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적극적 평화가 구조적 폭력의 제거와 사회 정의 실현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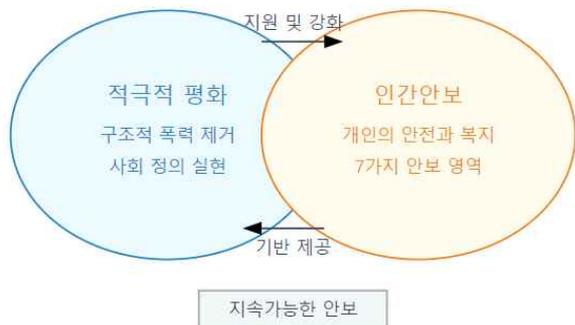


그림 2. 평화와 안보의 관계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Security
 출처: [9]를 참고하여 저자가 구성함

이러한 개념들은 실제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형성과 확장 과정은 경제 협력과 가치 공유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10].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적극적 중립' 정책은 군사적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

국제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는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정량화하여 각국의 평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는 국내외 갈등, 사회 안전, 군사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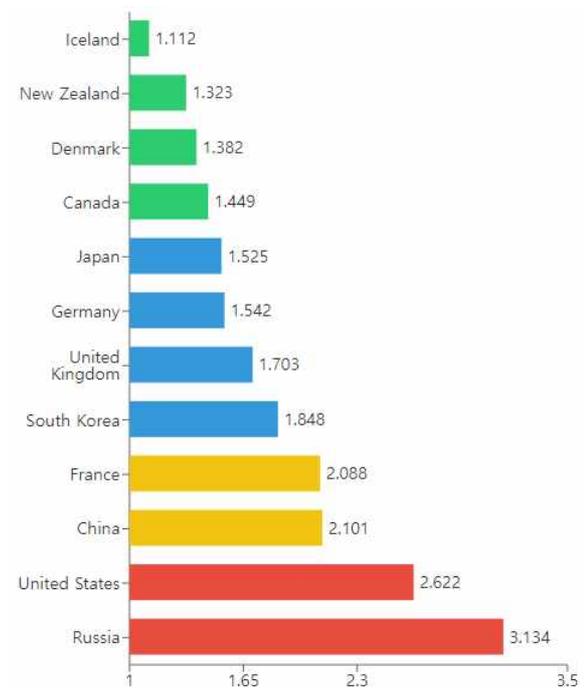


그림 3. 국제 평화 지수 2023
 Figure 3. Global Peace Index 2023
 출처: [6]

결론적으로,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군사력 증강이나 동맹 강화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과 같이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한 국가에게 이러한 접근법은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한국의 '적극적 평화' 전략 수립

한국의 '적극적 평화' 전략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반도 차원의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지역 협력 강화,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그리고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 다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의 핵심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딜레마 해소와 경제·문화·환경 협력 강화에 있다. 이는 전통적인 안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

남북 간 안보 딜레마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 군축과 신뢰구축 조치(CBMs)를 추진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는 이러한 노력의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DMZ의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이 지역을 갈등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또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구축, 군사훈련 상호 통보 등의 조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의 국경 지역 협력 사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13].

경제·문화·환경 분야의 협력 강화는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는 경제 협력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넘어 남북 공동 경제특구 조성, 북한의 경제 개발 지원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고구려 고분군 공동 발굴 사업, 협력적 문화유산 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환경 협력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황사 방지를 위한 산림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경제 협력을 통해 유럽의 평화를 구축한 사례를 한반도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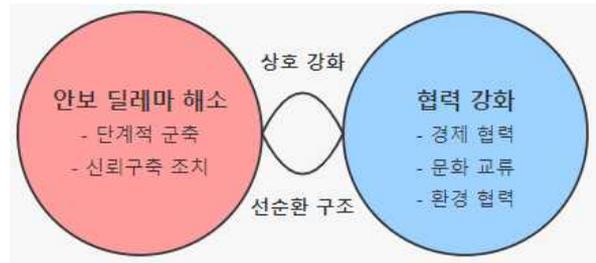


그림 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Figure 4.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양자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모델을 동북아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역내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 단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확대 발전시켜 동북아 안보대화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안보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이 대화 체제를 제도화하여 정례적인 외교·국방장관 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전통적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보건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안보 개념의 확장과 함께 역내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경제력, 소프트파워, 그리고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역할 수행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16].



그림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단계
 Figure 5. Stage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in Northeast Asia

3.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한국의 '적극적 평화' 전략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UN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와 국제 분쟁 중재 역량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는 한국이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한국의 PKO 참여 규모는 중견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참여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요 기여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PKO 참여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 단순한 병력 파견을 넘어 공병, 의료, IT 등 한국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PKO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국제 평화 증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17].

국제 분쟁 중재 역량 강화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평화 기여 방안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분쟁 후 평화 구축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내 분쟁중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8].

또한, 한국의 평화 기여는 개발협력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공적개발

원조(ODA)를 평화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쟁 취약국의 거버넌스 개선, 경제 발전,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포괄적 접근이 될 것이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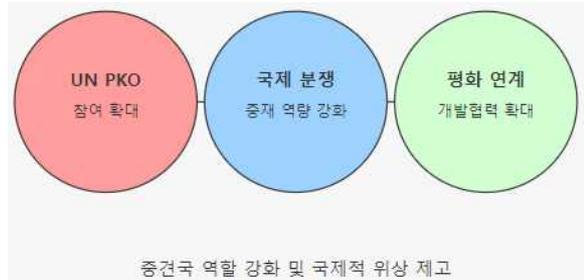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글로벌 평화 기여 확대
 Figure 6. Expanding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Global Peace

4. 국내 사회통합을 통한 내적 평화 구축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대외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사회 불평등 해소, 소수자 권리 보호, 갈등 조정 메커니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 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노인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통합형 주거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지원 등 각 세대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념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확대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편향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권 비수도권 간

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이러한 노력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통합과 내적 평화 구축에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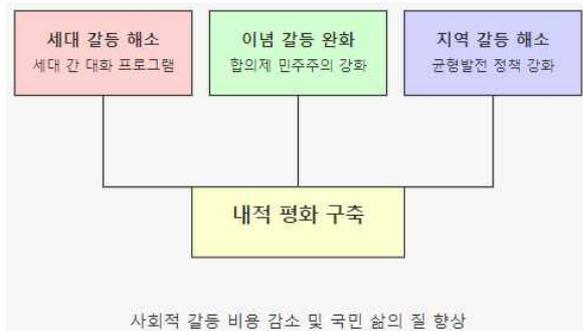


그림 7. 국내 사회통합 전략
Figure 7. Domestic Social Integration Strategy

5. 평화 교육 및 문화 확산

마지막으로, 평화 교육 강화와 평화 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적 평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내재화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다.

평화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주로 안보와 통일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평화의 가치, 갈등 해결 능력, 다양성 존중 등의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역사 교육에서 한반도의 분단 과정을 다룰 때, 단순히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평화 교육은 학교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단체, 종교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평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갈등 해결 워크숍, 노인을 위한 평화 인문학 강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평화

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21].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을 지원하고, SNS를 활용한 평화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평화공원 조성, 평화 관련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일상에서 평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간 문화 교류도 평화 문화 확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남북 공동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 예술단 교류 공연,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22].



그림 8. 평화 교육 및 문화 확산 전략
Figure 8.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Peace Education and Culture

IV. '적극적 평화' 전략 실현을 위한 국가 체제 개편

1. 군의 역할 재정립

'적극적 평화' 전략 하에서 군의 역할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영토 방위 임무를 넘어 평화 유지,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군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국제 재난 구호 활동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여 병역의 의미를 국가 방위에서 평화 기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역 복무의 일부를 국제 평화 활동이나 국내 사회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22][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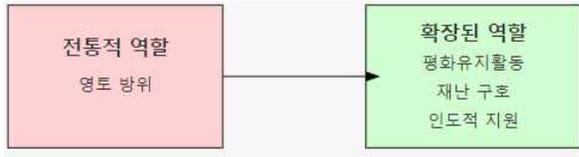


그림 9. 군의 역할 전환
 Figure 9. Transformation of the Military's Role

2.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 배당금 개념 도입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에 집중되었던 예산의 일부를 평화 구축 활동, 국제 협력, 평화 교육 등에 할당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감축이 아니라, 안보를 달성하는 방식의 다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평화 배당금'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비 감축이나 평화 협정 체결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을 교육,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평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여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25].

3.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적극적 평화' 전략 하에서는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갈등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평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하여 '평화 기술(Peace Tech)'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는 평화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함께,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26].



그림 10.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Figure 10. Promoting the Peaceful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4.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마지막으로, '적극적 평화' 전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평화권'의 헌법적 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화권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에 평화권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 추구의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평화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 평화 지향성을 제고할 수 있다[27].

이상의 국가 체제 개편은 '적극적 평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예산 재분배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 배당금 개념의 도입은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가시화하고,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보와 평화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은 한국의 기술력을 평화 증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육성의 기회

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지원, 국제 협력 강화, 평화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적극적 평화'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평화 문화 확산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11. 적극적 평화 전략 실현 로드맵
Figure 11. Roadmap for Implementing an Active Peace Strategy

V. 결론: '적극적 평화' 전략의 의의와 미래 전망

1.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

'적극적 평화' 전략의 실현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등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평화 중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데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평화 구축에 필요한 자원 마련과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평화와 안보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평화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 전략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 교육과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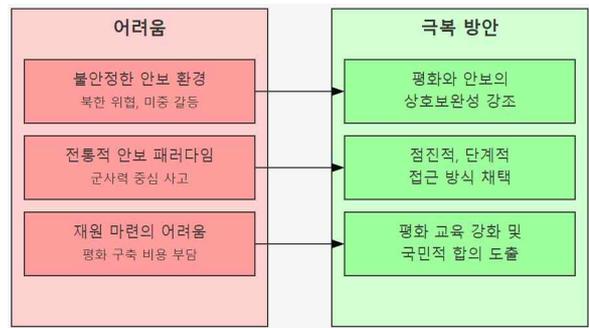


그림 12. 적극적 평화 전략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Figure 12. Challenges and Solutions in Implementing an Active Peace Strategy

2. '적극적 평화' 전략의 기대 효과

'적극적 평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국제 평화 기여 활동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평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발전 경로를 창출할 수 있다[29].

이러한 효과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평화를 통한 안보 실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3. 한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 평화 선도국가로의 도약

'적극적 평화' 전략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위협을 관리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평화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확산하는 '평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 하에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30].

평화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평화 역량을 핵심적인 국력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United Nations. "Our Common Agenda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2021.
- [2] Mastro, Oriana Skylar. "The Taiwan Temptation: Why Beijing Might Resort to Force." *Foreign Affairs*, vol. 100, no. 4, 2021, pp. 58–67.
- [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3." World Economic Forum, 2023.
- [5]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1969, pp. 167–191.
- [6]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Peace Index 2022: Measuring Peace in a Complex World." IEP, 2022.
- [7] Buzan, Barry, and Lene Hanse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9] Richmond, Oliver P. "Peace Formation and Political Order in Conflict Affected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10] Manners, Ian.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0, no. 2, 2002, pp. 235–258.
- [11] Browning, Christopher S. "Branding Nordicity: Models, Identity and the Decline of Exceptionalism."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42, no. 1, 2007, pp. 27–51.
- [12] Fry, Douglas P. "The Human Potential for Peace: An Anthropological Challenge to Assumptions about War and Viol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13] Nan, Susan Allen, et al. "Peacemaking: From Practice to Theory." Praeger, 2011.
- [14] Archer, Clive, and Pertti Joenniemi. "The Nordic Peace." Routledge, 2003.
- [15] Dinan, Desmond.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Palgrave Macmillan, 2014.
- [16] Hettne, Björn, and Fredrik Söderbaum. "The New Regionalism Approach." *Politeia*, vol. 17, no. 3, 1998, pp. 6–21.
- [17] Cooper, Andrew F., et al. "Global Governance and Diplomacy: Worlds Apart?" Palgrave Macmillan, 2008.
- [18]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United Nations, 2021.
- [19] Lederach, John Paul.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7.
- [20]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SAGE Publications, 1996.
- [21] Orozco, Manuel. "International Norms and Mobilization of Democracy: Chile in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2018.
- [22] Orozco, Manuel. "International Norms and Mobilization of Democracy: Chile in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2018.
- [23]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SAGE Publications, 1996.
- [24] Wulf, Herbert. "Revisiting the Concept of Security Sector Reform."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2011.
- [25] Brauer, Jurgen, and J. Paul Dunne. "Peace Economics: A Macroeconomic Primer for Violence-Afflicted State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12.
- [26] Miklian, Jason, and Kristian Hoelscher. "A new research approach for Peace Innovation." *Innovation and Development*, vol. 8, no. 2, 2018, pp. 189–207.
- [27] Roche, Douglas. "The Human Right to Peace." Novalis, 2003.
- [28] Lederach, John Paul.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7.
- [29]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Positive Peace Report 2022: Analysing the Factors that Sustain Peace." IEP, 2022.
- [30]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ublic Affairs, 2004.
- [31] Richmond, Oliver P. "Peace Formation and Political Order in Conflict Affected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